



세계대공황 이후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뉴딜정책'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이 전개됐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하는 뉴딜정책이란 어떤 것일까? 뉴딜의 공식명칭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New Deal)'이다. 결코 토목공사사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테네스강 개발공사를 통해 실업자 흡수를 꾀하기도 했지만, 경제 시스템을 자유방임에서 국가에 의한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 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전체의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정책, 이를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을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데 정책 목적이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진 기본적인 경제철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지나치게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당대의 독점 기업가들이 취했던 지나친 탐욕을 자제시키고, 왜그법에 의해 노동자들의 권리(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강화해 복지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그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추구한 것은 자본의 지나친 탐욕을 억제시키는 것, 즉 미국을 약탈자본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농업조정법'을 제정해 과잉 농산물의 정부수매 등에 의해 농가를 구제했다. 따지고 보면, 뉴딜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은행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화, 부의 재분배, 노동복지의 향상 등 사회주의적 감정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른바 케인즈 정책, 수정자본주의 정책)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입각한 개혁의 결과로, 미국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오르게 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간의 체제경쟁이 미국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뉴딜정책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 개혁조치 이후 미국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취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게 되지만, 종전 후 1973년 석유파동을 겪을 때까지 30여 년간의 미국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성장률과 역동성을 보인 황금기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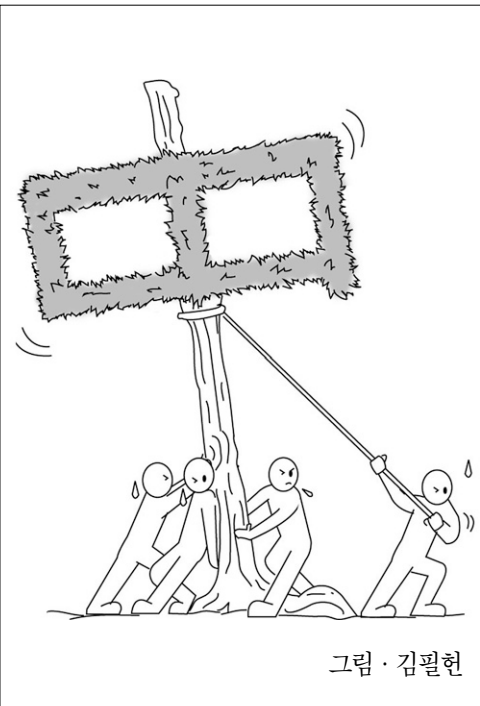
필자는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뉴딜정책'이 추구한 가치관이야말로 불교경제학의 내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의 안정은 사회전체의 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남의 삶과 나의 삶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타행의 생활방식을 가르친다. 이런 삶의 풍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안가서 세계는 자본주의대 공산주의의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결국 냉전은 미·소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안겨 주었다. 체제 대립으로 말미암아 양국 모두 자신의 진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및 재정 적자)로 고통 받았고 소련은 그 이상으로 재정파탄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이르러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도 급속한 민주화와 자유시장

경제로 이행하면서 국제자세가 소멸돼 러시아가 탄생한다. 이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주의 체제도 붕괴하면서 사실상 체제대립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종전 후 이데올로기 체제 대결이 지속되고 있던 기간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경제개발하기 좋았던 시절이었다. 양 진영의 체제 경쟁으로 인해 약



탈자본주의가 제어되고 국제 자본의 탐욕이 억제됐던 이 기간에 제3세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1960년대 초 이후의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라이벌인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소득수준이 높았고 사회자본의 인프라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독과점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들의 지나친 탐욕을 억제시켜 갔다. 박 대통령이 취한 경제 개발정책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있었다. 국민들에게 '빈곤의 함정'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 우리 함께 잘 살아 보자고 호소하면서 정부주도 방식의 계획경제 체제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한국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중심의 글로벌자본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한다.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모델'로 인정받았던 한국경제도 위란 위기를 겪게 된다. 그 영향은 '신용카드대란'을 겪고 아직도 남아 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 최근에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3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다. 결국 90년대 중반기 이후 미국주도의 글로벌 신자본주의의 사조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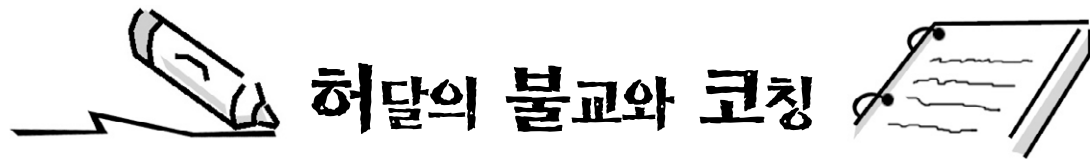
제도의 개편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데 문제의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의 결과로 신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수용한 이래 자본이 마음 놓고 탐욕을 부리는 모양새이다. 이로 인해 경제 '양극화현상'이 나타났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약탈자본주의의 탐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원리주의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뉴딜정책'을 얘기한 것은 막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미국의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신자본주의로 계속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자본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며 '뉴딜정신'의 회복을 주장하던 폴 크루거먼이 200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1980년대의 로널드·레이건 대통령 이래 미국이 취해왔던 신자본주의(자본의 탐욕)의 정책이 수정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적절한 전환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그 적절한 대응 방향은 어디까지나 고용정책의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양극화의 골이 깊어져 사회적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⑩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전환 게임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워크숍 참여자들이 한 팀에 다섯 명씩, 서너 팀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점심 먹고 식곤증 날 때쯤, 한 팀에 깔개 한 장씩을 나눠 주고 풀밭으로 나간다. 한 팀이 어깨동무를 하고 등글게 서면 땅과 닿는 접면(接觸面)은 당연히 열 개가 된다. 그 접면을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줄이거나 늘여 나가는 게임이다. 먼저 완성하는 팀이 이긴다.

시범 삼아 접면을 다섯 개로 줄여본다. 우열이 가려질 터이 없다. 어깨동무 하고 한 발씩을 들고 외다리 서기를 하면 되니까, 다음 접면을 네 개로 줄인다. 이번도 어렵지 않다. 제일 가벼운 한 명이 제일 건강한 팀원의 등에 업히는 것으로 만사해결.

이어서 접면을 세 개로 줄이도록 구령이 떨어진다. 이번엔 세 사람이 한 다리로 서고 두 명의 가벼운 사람을 끌라 업히거나 매달리거나 해야 한다. 불안한 자세이지만 그런대로 세 다리로 술발(鬪足) 모양을 만들어 성공하는 팀들이 생긴다.

자! 그런데 접입가경, 다음은 접면을 두 개로 줄이라는 구령이다. 두 사람을 외다리로 세워놓고 그 위에 세 명이 올라갈 생각을 해보지만 가능할까? 노력은 실패하고, 결국은 면이 꼭 발바닥 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점에 착안해서 두 사람이 풀밭 위에 놓고 그 위에 세 사람이 걸쳐 놓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팀이 나오게 되는 것이 보통의 수순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게임은 다음으로 넘어 간다. 접면을 한 개로 줄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한 방법을 원용해 건강한 한 사람을 깔고 그 위에 네 사람이 걸쳐 엮드려, 하나 둘 셋 새우처럼 배 뒤지기를 하면 이른 상상 모양이나 오기는 하는데, 그 전에 밑에 깔린 불쌍한 팀원 입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온다. 이제는 게임 끝이겠지, 끝까지 버리고 다들 일어선다.

다 끝난 줄 알고 모두들 깔개 걸을 때쯤 다음 차례의 구령이 떨어진다. 접면을 "0"으로 만들라는 구령이다. 한 동안의 실황 실래 끝에, 온 좋은 팀 머리에서 어찌다 방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모두 어깨를 걸고, 하나, 둘, 셋 뛰어 오른다. 훌륭히 접면 0개를 만들었다.

"이건 반칙 아닙니까?" 미처 방법을 찾지 못한 팀에서는 항의한다. 그러나 지속시간의 개념은 게임의 규칙 속에 없었던 것을 곧 상기하게 된다. 아하! 이쯤이면 이 게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가 참여자들이 깨닫는다. 게임은 계속되지만 이제부터는 확

잠재력과 창의력 끌어올리는 패러다임 코칭

인 과정일 뿐이다. 구령은 다시 접면 한 개 만들기로 늘어 가지 만, 이번에는 풀밭 위에 넘어지고 짓눌리고 하는 일이 없어진다. 어깨를 걸은 채로 한 명만 외다리로 서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뛰어 된다. 접면 두 개 만들지, 세 개 만들지는 어떤가?

이 게임에서 참여자들은 무엇이 속아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였던 것일까? 몇 가지 속임수를 위한 소도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풀밭으로 끌고 나간 것도 그렇고, 깔개를 나누어준 것도 은연 중 넘어지고 깔리고 하는 과정이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암시가 됐다. 그러나 더 큰 속임수는 무엇이었을까? 열에서 다섯, 다섯에서 넷, 셋, 둘, 하나로 줄여가는 점진적 과정(Incremental Process)이다. 지난 번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같은 방법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을 은연 중 프로그래밍했던 것이다. "하나" 또는 "0"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에 직면하고 나서야, 참여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인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며, 그 깨달음이 생겨나자,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답은 종전과는 다른 쉬운 방법에 의해서도 얻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도전을 질문으로 만들어 고

객 앞에 제기하는 행위 역시 코치의 몫이다. 앞의 '밀리언달러 베이비' 영화에서 우리는 코치 프랭키의 강력한 질문이 북서 매기에게 작용해, 그녀 게임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힘과 스피드, 반사능력의 게임으로부터, 두뇌활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았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수행자가 동산(洞山) 화상에게 묻자 화상이 답했다. "삼이 세 근(三斤)이다."

알음알이의 '허공 꽃(空華)' 패러다임을 일순에 무너뜨려 은산철벽(銀山鐵壁)의 아득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케 하는 선지식들의 여러 준엄한 코칭 질문 중 하나를 외롭되지만 <벽암록> '제12칙'에서 인용했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공 고 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2008고단413 특수절도에 의하여 피고인 이용희(혜봉)는 총무원사 특수절도 사건에서 2008년12월5일 위법원에 의하여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이 아니라는 판결선고에 의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6월의 선고유예할 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음에 이에 공고함.

따라서 혜봉(이용희)의 총무원장이라는 주장 및 총무원이 인천 부평구 일신동 83-1.2.3 보명사4층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1번지 금오플러스13층으로 이전 했다는 내용과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종정관한대행,총무원장 석 혜봉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사찰등록증,주지임명장,도첩,승려증,법계고시 등 일체행위는 허위 및 무효임에 주의 부탁드리며, 그 어떠한 주장에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7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석 백 관**

우) 320-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 / ☎ 041)734-5371 ~ 2 / FAX 041)734-5373